

무엇이 언제부터 어떻게 개방되나

우리 민족의 얼이요, 혼인 쌀시장마저도 빗장을 풀어야 하고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귤, 우유 및 유제품등
나머지 14개 비교역적 기능(NTC)품목도 모두 개방해야 한다.

농축산물 시장의 전면개방.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로 벼랑 끝에 선 韓國농업의 현주소다. 우리 민족의 얼이요, 혼인 쌀시장마저도 빗장을 풀어야 하고 쇠고기, 보리,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귤,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등 나머지 14개 비교역적 기능(NTC)품목도 모두 개방해야 한다.

이들 15개 품목의 한해 총생산액은 12조7천4백억원. 이 12조7천억원대의 시장을 품목에 따라 빠르면 95년부터, 늦게는 2000년 이후에는 열어야 하는 것이다.

품목별로 개방방식을 살펴본다.

쌀

굳게 잠겼던 쌀시장의 빗장은 95년부터 풀리게 된다.

비록 수입량이 우리나라 연간 쌀소비량의 1%에 불과하지만 95년부터는 쌀시장 개방의 회오리가 우리나라 농촌을 강타하게 될 것이다.

전체농가의 85%가 쌀농사를 짓고 있고 생산액도 15개 비교역적기능 품목의 총생산액 12조7



오 덕 화
농민신문 농정부장

천4백억원의 50%가 넘는 6조4천6백82억원에 달하는 것이 우리의 쌀농사다.

UR에서 우리나라의 쌀 개방조건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소비량의 1~4%를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수입하고 국내의 가격차를 관세로 부과하는 이른바 관세화방식의 개방은 2004년까지 유예하되 2004년 이후의 관세화 수용여부는 2003년에 재협상으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95년 국내소비량의 1%를 5%의 기본관세로 수입하기 시작해 이후 99년까지 수입량을 매년 0.25%씩 늘리고 2000년 2%에서 다시 매년 0.5%씩 늘려 2004년에는 최

소한 소비량의 4%를 수입해야 한다.

국내소비량을 계산하는 기준연도는 88~90년.

지난 88~90년 3년간 우리나라의 한해 쌀소비량은 3천5백65만섬이다.

이에따라 95년 우리나라가 5%의 기본관세로 수입해야할 외국산 쌀은 35만섬에 달한다. 또

- ▲96년 44만섬(1.25%)
- ▲97년 53만섬(1.5%)
- ▲98년 63만섬(1.75%)
- ▲99년 72만섬(2.0%)
- ▲2000년 72만섬(2.0%)
- ▲2001년 89만섬(2.5%)
- ▲2002년 1백7만섬(3.0%)
- ▲2003년 1백25만섬(3.5%)
- ▲2004년 1백42만섬(4.0%)

을 수입해야 한다.

현재 美國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칼로스>쌀의 80kg 한가마당 평균가격은 3만원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칼로스>쌀을 수입할 경우 5%의 기본관세와 쌀값의 17%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수출비용등을 감안하더라도 수입가격은 4만원 안팎에 불과한 실정.

즉 95년에는 80kg 한가마당 4만원 안팎인 美國산 <칼로스>쌀을 35만섬, 2004년에는 1백42만섬을 수입해야 하는 것이다.

쇠고기

이번 협상 타결로 국내 쇠고기 산업은 완전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오는 95년에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12만 6천톤의 물량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빌미로 무분별한 수입을 했던 92년 수준이다. 이를 연차적으로 2만톤씩 늘린 뒤 6년후인 2000년에 수입해야 하는 22만 5천톤은 최근 3년 평균치 국내 전체소비량에 해당된다.

이후 2001년에는 완전개방.

이 기간중 관세는 95년 43.6%에서 매년 0.4%씩 낮춰 2004년 이후부터는 40%를 적용하게 된다.

수입가격과 국내 도매시장 상장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부과해 축산발전기금에 납입되는 관세성격의 마크업도 현행 1%에서 매년 10%씩 낮춰 나가다 2000년에는 아예 없애야 한다.

축협중앙회가 분석한 92년 생

축 기준 1kg당 쇠고기값은 美國 1천2백원, 濠洲 1천3백원 등으로 국내값 6천원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축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대체효과가 높기 때문에 쇠고기 시장의 개방만으로도 돼지, 닭 등 다른 축종의 사육기반까지 흔들어 놓을 수 밖에 없다.

국내 소사육 농가수는 9월 현재 57만가구. 사육 마리수는 2백30여만마리에 달한다. 91년이후 올해까지 3년동안의 연평균 소비량은 22만4천톤. 이중 92년에는 수입쇠고기 소비량이 12만7천톤으로 자급률은 46%에 그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농가직접 피해액만도 2조1천51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돼지고기

오는 97년 7월부터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시장개방 이전인 95년에는 2만 1천9백30톤, 96년 2만9천2백40톤, 97년 상반기중에는 1만8천2백75톤을 킬로로 수입해야 한다.

킬로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적용되며 킬로 초과 물량

또는 킬로의 물량(97년 7월 이후)에 대해서는 신선고기의 경우 95년 29.6%에서 2004년까지 22.5%로, 냉 동 고기는 95년 37%에서 2004년까지 25%로 감축해야 한다.

93년 9월 현재 국내 돼지사육 마리수는 5백99만마리, 농가수는 7만3천가구로 농가당 평균사육 규모는 82마리이다.

정부는 국내 양돈업의 전문화(專業化)가 그런대로 착실하게 추진돼 온데다 수입가격에 관세, 운송비 등을 포함시킬 경우 국내 거래값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농가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농경연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돼지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피해액이 쇠고기 다음으로 많은 1조8천3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정부와는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달고기

97년 7월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시장개방 이전인 95년 7천7백톤, 96년 1만4백톤, 97년 상반기 6천5백톤을 킬로로 수입해야 한다.

킬로물량에 대해서는 20%의 관세가 적용되며 킬로초과 물량

또는 쿼터의 물량(97년 7월이 후)에 대해서는 95년 35%에서 2004년까지 10년간 15%를 감축해야 한다.

9월말 현재 농가당 평균 사육 마리수는 4백여마리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비 투자가 확대될 경우 수출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만큼 개방피해도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농경연이 추산한 닭고기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가피해액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1천5백79억원이다.

우유 및 유제품

치즈류와 유장분말은 95년 1월부터, 버터류는 97년 7월부터 시장이 개방된다.

이 가운데 치즈류는 국내 제품 개발이 다양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가격이 국제거래값 보다 3~4배나 높은데다 관세도 40% 밖에 적용할 수 없어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료용 및 조제분유 원료용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으나 실제로는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유장분말은 20%의 관세를 적용, 95년 2만3천톤에서 2004년까지 이를

5만4천2백33톤으로 늘려 수입하게 돼있어 낙농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유제품은 품목이 다양한데다가가가 직접 가공해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가피해를 산출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감귤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주도국인 美國의 주요 공략대상으로 개방폭이 가장 큰 품목중의 하나이다.

신선오렌지는 97년 7월 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95년 1월부터 쿼터를 설정, 수입해야 한다.

수입쿼터는 95년 1만5천톤, 96년 2만톤, 97년 2만5천톤으로 해마다 5천톤씩 늘리고 98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2.5%를 증량해야 한다.

우리나라산과 품종이 비슷한 한국형 감귤등의 쿼터량은 95년 1천2백58톤에서 2004년까지 2천97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선오렌지나 한국형 감귤 모두 쿼터에 의한 수입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가 적용되며 쿼터초과 수입량에 대해서는 신선오렌지의 경우 95년 99%에서 2004년까지 50%로, 한국형 감귤등은 95년 1백60%에서 2004년까지

1백44%로 관세를 감축해야 한다.

농축액(주스)은 현행 양허관세(60%)로 97년 7월부터 완전개방하되 95년 5만톤, 96년 5만5천톤, 97년에는 6월까지 3만톤을 쿼터로 수입해야 한다.

신선오렌지의 경우 대부분 美國으로부터 수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97년 7월 시장이 완전개방되기 전까지는 쿼터량이 전량수입되더라도 수입시기를 국내산 감귤이 생산되지 않는 시기로 조절할 경우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완전히 열리고 나면 고율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경연에서는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감귤농가의 직접피해액이 7천9백4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추

농가소득과 생산농가수의 비중이 15개 기초농산물중 각각 6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농가소득원이다.

오는 95년부터 시장을 전면개방하되 최소시장접근을 수용, 95년 소비량의 3%인 4천3백11톤을 수입한 이후 2004년까지 5%

인 7천1백85톤으로 늘려 수입해야 한다. 이들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기본관세인 50%를 적용하게 된다. 이 물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서는 95년 3백% 또는 1kg당 6천9백원의 관세를 적용하되 2004년까지 이를 2백70% 또는 1kg당 6천2백10원으로 관세를 감축해야 한다. 주로 중국산이 수입될 전망이다.

농경연은 고추의 수입개방으로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2천17억원의 농가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마늘

95년부터 시장을 전면개방한다. 95년 소비량의 3%인 8천6백80톤을 최소시장접근형태로 수입한 이후 2004년까지 이를 소비량의 5%인 2만6백45톤으로 늘려야 한다.

최소시장접근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관세인 50%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서는 신선마늘의 경우 95년 4백% 또는 1kg당 2천원의 관세를 적용하되 2004년까지 이를 3백60% 또는 1kg당 1천8백원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또 냉동마늘은 95년 35.5%의 관세에서 2004년까지 27%로 감

축해야 한다.

농경연이 추산한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의 마늘재배 농가피해액은 3천3백16억원.

양파

고추·마늘등과 마찬가지로 95년부터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품목.

최소시장접근 형태로 95년 소비량의 3%인 1만2천3백69톤을 수입하고 2004년까지 이를 5%인 2만6백45톤으로 늘려야 한다.

이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는 50%.

쿼터초과량에 대해서는 95년 1백50% 또는 1kg당 2백원의 관세를 적용하되 2004년까지 이를 1백35% 또는 1kg당 1백80원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농경연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양파재배농가 피해액이 3백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깨

95년부터 시장을 완전 개방하되 현행시장 접근을 인정, 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현재의 연간수입량인 6천7백31톤을 수입해야 한다.

참기름은 95년에 소비량의 3%인 4백1톤에서 2004년에는 소비량의 5%인 6백68톤으로 늘려 수입해야 한다.

이같은 참깨와 참기름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40%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를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참깨는 95년 7백% 또는 1kg당 7천4백원의 관세를 적용하되 2004년까지 6백70% 또는 1kg당 6천6백60원으로 관세를 감축해야 한다.

참기름의 경우도 초과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95년 7백% 또는 1kg당 1만3천4백원의 관세에서, 2004년 6백70% 또는 1kg당 1만2천60원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농경연이 추산한 참깨농가의 피해액은 95년부터 7년간 모두 9백28억원.

보리

95년부터 국내의 가격차를 관세로 부과하는 이른바 관세화방식에 의해 개방되는 품목.

일반보리는 95년 시장을 개방하되 개방 첫해인 95년에 소비량의 3%(1만4천1백50톤)를 수입하고 수입량을 2004년까지 5%(2만3천5백82톤)로 늘려야

한다.

맥주보리는 현재의 수입량인 3만톤에 대해 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보리는 20%, 맥주보리는 35%의 관세가 적용된다.

초과 수입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일반보리의 경우 95년 3백33%에서 2004년 6백30%로, 맥주보리는 95년 5백70%에서 2004년 5백13%로 줄여나가야 한다.

95년부터 2001년까지 보리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가피해액은 일반보리 4천6백10억원, 맥주보리 3천4백33억원등 모두 8천43억원에 달할 것이란게 농경연의 분석이다.

콩

보리와 마찬가지로 95년부터 관세화방식에 의해 개방되는 품목이다.

현재의 수입량인 1백3만2천1백52톤을 95년부터 10년간 매년 3%의 관세로 수입하고 이 물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서는 95년 5백41%의 관세를 적용하되 2004년까지 이를 4백87%로 감축해야 한다.

농경연은 콩시장 개방으로 농가 피해액이 95년부터 2001년까지

9백76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옥수수

옥수수는 92년 자급률이 1.5%에 불과하고 국내 소비량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

그러나 그 나머지 1.5%마저도 95년부터 관세화방식에 의거, 수입을 개방해야 함에 따라 외국산에 침식당할 운명에 처해 있다.

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현재 수입되고 있는 6백10만2천1백톤을 3%의 관세로 수입해야 하고 이 이외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95년 3백38%도 관세를 적용하되 2004년까지 이를 3백28%로 감축해야 한다. 팥콩용 옥수수의 관세는 95년 7백%에서 2004년까지 4백87%로 감축해야 한다.

농경연이 추산한 옥수수농가 피해액은 95년부터 7년간 1천3백54억원.

감자

95년 관세화방식에 의해 개방되는 품목이다.

종자용은 95년 1천1백38톤을 수입한후 2004년까지 1천8백98톤으로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해

서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선감자는 30%의 관세를 부과해 95년 1만1천2백86톤을 수입하고 2004년까지 1만8천8백10톤으로 늘려야 한다.

이 물량 이외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95년 3백38%의 관세를 적용하되 2004년까지 3백4%로 감축해야 한다.

농가피해액은 3천81억원에 달할 것이란게 농경연의 분석이다.

고구마

고구마도 관세화방식에 의해 95년부터 개방되는 품목.

95년1만1천1백21톤에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수입물량을 늘려 2004년 1만8천5백35톤을 20%의 관세만을 부과해 수입해야 한다.

이 물량 이외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95년 4백28%의 관세를 적용하되 2004년까지 3백85%로 감축해야 한다.

농경연이 추산한 농가피해액은 2천3백31억원(95년~2001년).

농약정보